

日 수출규제 연관기업 현장 간담회
(‘19.9.17.(화) 14:30부터 보도 가능)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019. 9. 17.(화) 14:30

금 융 위 원 회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입니다.

추석명절을 마치고 일손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해
귀한 장소와 시간을 내어주신
아이원스 이문기 회장님과,
덕일산업 유기덕 대표님,
에스씨엠 석주용 대표님,
오킨스전자 홍원태 상무이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먼 거리에도 함께 자리해 주신
금감원 부원장님, 정책금융기관 실무진 여러분들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협회 및
금융연구원 관계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아이원스를 비롯한 기업들은
그간 척박한 환경 아래에서도
부단한 기술개발 노력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술력을 갖춘
자랑스러운 기업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참고 : 참석 기업 기술개발 사례

- ① 아이원스 : 초정밀 부품제조 및 세정 분야에서 26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우수한 기술력 바탕으로 독자적인 부품·설비 공정 마련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美 AMAT社 등 거래)
- ② 덕일산업 : '90년대 일본 등에서 수입하던 자동차 시트 스위치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03년부터 독자 생산 성공
(일본 완성차업체 테스트를 통과하여 일본 수출 준비 중)
- ③ 오킨스전자 :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초정밀 금형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중소 금형업체 등과 기술개발에 매진하여 '98년 독자 생산 성공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거래)

Ⅱ. 소재 · 부품 · 장비부문 지원정책 방향

① 최근의 금융 환경

여러분,
저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확고한 금융 안정”을
첫 번째 정책 방향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 금융위원장 취임사 중 네가지 정책 방향 :

- ① 확고한 금융 안정 ② 혁신성장 지원강화
- ③ 포용적 금융 강화 ④ 금융산업 혁신

우리 경제 ·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확고한 금융 안정을 이룰 때,
금융혁신과 포용금융도
꽃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미 · 중 무역갈등 심화 · 확산 등
대외적 요인에 따라
우리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글로벌 제조업 PMI : ('19.1)50.8 → (6)49.4 → (7)49.3

* 미국,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8.6), 상호 추가관세 발표(8.23)

* 코스피(p) : ('19.6말)2,130.6 → (7말)2,024.6 → (8.26)1,916.3 → (9.16)2,062.2
원/달러 : ('19.6말)1,154.7 → (7말)1,183.1 → (9.2)1,213.8 → (9.16)1,183.1

글로벌 교역 둔화, 반도체 업황부진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19년 글로벌 교역 증가율 전망(%) : <IMF> ('19.4)3.4 → ('19.7)2.5
<WTO> ('18.9)3.7 → ('19.4)2.6

** 수출(전년비,%) : ('18.4Q)7.7 ('19.1Q)△8.5 (2Q)△8.5 (7월)△13.6
 설비투자(전년비,%) : ('18.4Q)△5.3 ('19.1Q)△17.4 (2Q)△7.4

특히, 지난 8.2일 취해진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우리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 등의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금융과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②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필요성

특히, 소재 · 부품 · 장비산업의 경쟁력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기초 체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간 우리 소재 · 부품 · 장비산업은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첨단기술 제품보다는 범용제품 위주로 성장하여
핵심소재 등을 중심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 *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생산량 : ('01)240조원 → ('17)786조원
- * 정밀산업 자체 조달율(산업연, '18) : (반도체)27% (디스플레이)45%
- * '18년 대일 무역적자 241억불 중 소재 · 부품 · 장비부문 224억불(약 93%)

우리 정책금융도
IT · 바이오 등 신산업에 비해
소재 · 부품 · 장비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와 산업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정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재 · 부품 · 장비산업의
자립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각계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③ 일본 수출규제 연관기업 지원 방향

금융위원회는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2일 발표한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9.8.5~9.6일(5주간) 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은 일본 수출규제
연관기업 등에 대해 총 300건, 5,390억원을 지원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 * ①「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설자금 등 지원(16조원)
- ②R&D 기업 대상 보증 프로그램 마련(1.5조원)
- ③해외 기업 M&A 인수·투자자금 지원(2.5조원 이상)
- ④대기업 출자자금 등 바탕으로 민간자금 매칭하여 지원(0.5조원)

지난 9.10일 출범한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기업들이 해외 부문 M&A·투자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부문 등 우수한 기술을 체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 국내기업부문(대한상의, KOTRA 등), 금융부문(산·기·수은·농협 등)
등 민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M&A 인수·투자자금 등 다각적 지원

아울러,

재정·정책금융기관·민간 자금을 바탕으로

우리 소재·부품·장비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 펀드(가칭 : 소재·부품·장비 펀드) 조성도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소재·부품·장비 펀드 조성을 위한 재정 출연금 2,000억원 반영

Ⅲ. 당부 말씀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과 더불어
여기 모이신 정책금융 기관들과
기업인 여러분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일본 수출규제 등의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에 대해
당초 약속드린대로,
기 발표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보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공사례 등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상 애로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업계의 우려와 어려움에 대해서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V. 마무리 말씀

여러분,

우리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보다 발전된 경제와 안정된 시장을 구축해 온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련을 극복하면 우리는 더 강해진다.”(니체)라는 말처럼,

* “what does not destroy me, makes me stronger.”

- Friedrich Nietzsche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 나간다면,

최근의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우리 경제와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